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배포 즉시		
배포일	2016. 9. 5.(월)	홍보담당	홍보팀(02-880-5054, 9072)
담당부서	발전기금	문의	기획팀 02-871-1621

만만하게 참여하는 서울대 모금캠페인「만×만한 기부」

-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기부 문턱 낮춰...남녀노소 다양한 기부자 성황
- 페이스북 개설, 기부자와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'선한 인재 장학금'

- 서울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소액모금캠페인 「만×만한 기부」를 시행하고 출범 6개월 만에 약 250명 참여, 5억5천만원의 약정액을 달성했다.
- 지난 1학기부터 실시한 이번 「만만한 기부」 캠페인에는 서울대 많은 동문을 비롯해 재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 남녀노소 다양한 참여자의 후원이 이어졌다.
- 서울대 김지민(통계학과 '13년 입학) 학생은 “발전기금 장학생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었다”며 “나도 받았고 후배들에게도 꼭 필요한 장학금을 위한 캠페인이기에 그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
- 또한 고령의 한 동문은 “어려웠던 시절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아쉬움이 늘 남아 서울대 소식을 접하면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든다”며 “비록 졸업은 못했지만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”고 마음을 전했다.

- 최근 서울대는 나눔의 장벽을 낮추고 기부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「만만한 기부」 페이스북 페이지를 오픈하고 9월 5일(월)부터 페이스북 오픈 이벤트를 시작했다. 「만만한 기부」 페이스북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기부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속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.
- 이번 캠페인은 평상시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만원의 의미를 ‘한끼 식사, 두잔의 커피’로 상징해 구성했으며, 매월 1/3/5/10만원 등을 꾸준히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. 또한 ‘쉽고 재미있는 기부’를 표방해 70% 이상의 많은 참여자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기부가 아니라 소액정기후원을 선택하며 선한 인재를 키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.
- 서울대 구성원과 더불어 일반인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「만만한 기부」 캠페인은 소액의 기부를 통해 서울대 후원자로서 소속감을 갖도록 구성됐다. 따라서 기부에 참여하면 SNU FAMILY로 명명되고, 「만만한 기부」 전용 기념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.
- 서울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‘선한 인재 장학금’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, 이렇게 모금되는 생활비 장학금은 가계소득 1분위 이하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) 학생 850여명 전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.

(이벤트·캠페인 관련 사항은 서울대발전기금 홈페이지 <http://www.snu.or.kr>,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giving2snu/> 참조)